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Ⅱ 제5차 예비평가

#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Ⅱ 제5차 예비평가 정답 및 해설

※ 이감에서 제공하는 학습 서비스를 받아 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에서 '이감TV'를 검색하세요.

## • 국어 영역 •

### 정 답

| | | | | | | | | | |
|---|---|---|---|---|---|---|---|---|---|
| 1 | ① | 2 | ④ | 3 | ① | 4 | ⑤ | 5 | ② |
| 6 | ② | 7 | ① | 8 | ② | 9 | ⑤ | 10 | ④ |
| 11 | ⑤ | 12 | ③ | 13 | ① | 14 | ① | 15 | ⑤ |
| 16 | ② | 17 | ③ | 18 | ⑤ | 19 | ④ | 20 | ③ |
| 21 | ② | 22 | ④ | 23 | ④ | 24 | ② | 25 | ③ |
| 26 | ⑤ | 27 | ③ | 28 | ③ | 29 | ④ | 30 | ⑤ |
| 31 | ② | 32 | ④ | 33 | ② | 34 | ⑤ | 35 | ③ |
| 36 | ① | 37 | ④ | 38 | ① | 39 | ③ | 40 | ② |
| 41 | ② | 42 | ④ | 43 | ① | 44 | ④ | 45 | ③ |

### 해 설

**[1～3] (화법) 연계 지문 : 수능완성 244쪽**

**1.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발표자가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들어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② 발표자는 '백제의 서동이 ~「서동요」에 대해 다들 아시죠?'라고 청중의 배경지식을 환기하여 발표 주제와 연결 짓고 있다. ③ 발표자는 '그런데 복원이 완료된 모습은 ~ 불완전한 상태로 보이죠?'라고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활용하여 청중의 주의를 끌고 있다. ④ 발표자는 '문화재청에 따르면'이라고 정보의 출처를 제시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⑤ 발표자는 발표 내용을 1998년의 해체와 복원 결정, 2009년의 유물 발견, 그리고 2019년의 복원 완료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하고 있다.

**2. [출제의도] 발표자가 자료를 활용한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발표자는 미륵사지 석탑에서 사리 장엄구와 사리 봉안기가 놓여 있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자료 2>를 ㉡에서 활용하였다.

**[오답풀이]** ①, ② ㉠에서는 1915년에 일본인에 의해 보수된 미륵사지 석탑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자료 1>이 활용되었다. ⑤ ㉢에서는 2019년에 복원이 완료된 미륵사지 석탑의 모습을 보여 주고 석탑에 적용된 복원 원칙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자료 3>이 활용되었다.

**3. [출제의도] 청중이 제기할 수 있는 추가 질문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발표에서 미륵사지 석탑은 원래의 크기가 9층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석탑의 처음 크기에 대해 묻는 ①은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4～7] (화법－작문) 연계 지문 : 수능특강 80쪽**

**4. [출제의도] 토의의 특정 부분의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 '학생 1'이 세계 각국의 솔라 로드 설치 현황을 소개하자고 한 것은 '학생 2'의 의견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학생 2'의 의견에 동의한 후에 글에 포함하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는 또 다른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5. [출제의도] 토의의 특정 부분에 반영된 말하기 전략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학생 2'는 '학생 1'이 '그런데 솔라 로드에서 ~ 소개하지 않는 게 좋겠어.'라고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 '그러면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것이니'라고 하여 상대가 제시한 의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 다음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을 사실대로 소개해 주자'는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②의 설명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은 앞서 '학생 3'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자료를 활용해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발화이다.

**6. [출제의도] 토의에서 논의한 내용이 글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B]에서 '학생 3'이 '솔라 로드가 전기 차의 확대 보급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추가해 주자'고 이야기하였는데, 이 의견이 반영되어 [C]에서는 '학생 3'이 언급한 내용과 '솔라 로드에 무선 충전 기능을 도입할 경우 전기 자동차가 달리면서 충전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는 전기 차의 확대 보급에 기여할 수 있는 이유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

**7. [출제의도] 마지막 문단을 적절히 고쳐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마지막 문단과 고쳐 쓴 글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나)의 마지막 문단의 둘째 문장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솔라 로드는 자동차 도로가 아닌 자전거 도로로 먼저 설치되었다.'라는 글의 흐름에 벗어나는 문장을 삭제한 것이다. 그리고 고쳐 쓴 글의 마지막 문장은 (나)의 마지막 문장에 '머지않은 미래에 수많은 자동차들이 솔라 로드 위를 달리게 될 것이다'라는, 문제점들이 해결된 미래의 긍정적 모습이 추가되어 있다.

**[8～10] (작문) 연계 지문 : 수능완성 246쪽**

**8. [출제의도] 작문 맥락을 고려하여 일기와 건의문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는 글쓴이의 주장과 논거가 드러나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건의문에서는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사용하여 건의 내용에 대한 설득력을 높인다.

**9. [출제의도] 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건의문에 추가할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추가할 내용에는 두 가지 사항, 즉 건의가 받아들여졌을 때 예상되는 주민들의 행동 변화와 그로 인한 환경 보호의 효과가 드러나야 한다. 주민들이 종이팩을 종이류로 배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행동 변화와 종이팩 재활용률이 높아져 산림 자원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⑤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주민들이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 역시 환경 보호의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주민들의 행동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② 쓰레기로 폐기되는 종이팩의 양이 감소하는 것은 환경 보호의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주민들의 행동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④ 폐기되는 종이팩의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환경 보호의 효과가 아니다.

**10. [출제의도] 건의문을 작성한 후 수집한 자료의 활용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생산된 종이팩 중 재활용되는 종이팩의 비율, 즉 종이팩의 재활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종이팩 수거 제도를 실시해 달라는 건의문이다. 종이팩은 종이류로 배출되면 재활용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종이류로 배출된 종이팩 중 재활용되는 종이팩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11～15] (언어)**

**11. [출제의도] 관형어의 성격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문항 : 수능특강 251쪽)**

㉤은 본래의 품사가 관형사인 말로, 용언의 활용형이 관형사로 굳어진 말이 아니다. ㉥은 어원적으로 볼 때 '바르다'라는 용언의 활용형이 관형사로 굳어진 말이다. ㉥은 '오른쪽을 이를 때 쓰는 말.'의 뜻으로 쓰인다.

**[오답풀이]** ① ㉠은 동사인 '틈나다'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동사의 활용형이며, ㉢은 용언의 관형사형이 새로운 단어로 굳어진 것으로, 그 품사는 관형사이다.

**12.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관형어에 대해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문항 : 수능완성 142쪽)**

문장에서 관형어로 기능하고 있는 '쇠'는 체언 '쇼' 뒤에 관형격 조사 'ㅣ'가 붙은 것이므로 문장에서 체언이 홀로 관형어로 기능하는 경우가 아니다.

**[오답풀이]** ④ 관형격 조사 'ᄋᆡ'는 선행 체언이 동물 또는 높임의 대상이 아닌 사람일 때에 결합하였다.

**13. [출제의도] 음운 변동 결과와 그에 따른 음운의 개수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문항 : 수능완성 51쪽)**

'거짓말[거진말]'은 '짓'의 'ㅅ'이 'ㄷ'으로 교체되고, '말'의 'ㅁ'의 영향을 받아 'ㄷ'이 'ㄴ'으로 교체되어 음운 변동이 2회 일어났으며, '급행열차[그팽녈차]'는 '급'의 'ㅂ'과 '행'의 'ㅎ'이 'ㅍ'으로 축약되고, '열'의 초성에 'ㄴ'이 첨가되어 2회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거짓말[거진말]'과 '급행열차[그팽녈차]' 모두 음운 변동 결과 음운의 개수는 변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④ '입학식[이팍씩]'은 '입'의 'ㅂ'과 '학'의 'ㅎ'이 'ㅍ'으로 축약되고, '식'의 'ㅅ'이 'ㅆ'으로 교체되어 2회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높다랗고[놉따라코]'는 '높'의 'ㅍ'이 'ㅂ'으로 교체되고 '다'의 'ㄷ'이 'ㄸ'으로 교체되고, '랗'의 'ㅎ'과 '고'의 'ㄱ'이 'ㅋ'으로 축약되어 3회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각각의 예는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다.

**14. [출제의도] 다의어의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문항 : 수능특강 197쪽)**

'언니는 머리를 다쳐 한동안 고생했다.'에서 '머리'는 '사람이나 동물의 목 위의 부분.'을 의미하므로 ㉠으로 쓰인 경우이며, '그는 행동이 민첩하고 머리까지 뛰어났다.'에서 '머리'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하므로 ㉡으로 쓰인 경우이다.

**[오답풀이]** ② 위의 사례는 주변적 의미로, 아래의 사례는 중심적 의미로 쓰였다. ③ '그는 눈이 아주 나빠서 안경을 써야 한다.'에서 '눈'은 '물체의 존재나 형상을 인식하는 눈의 능력.', 즉 '시력'을 의미하므로 ㉡으로 쓰인 경우이다. '그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다.'에서 '눈'은 '사람들의 눈길.'을 의미하므로 ㉡으로 쓰인 경우이다.

**15. [출제의도] 문장에서 안긴문장의 기능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계 문항 : 수능특강 235쪽)**

ⓒ에는 부사절('매우 지루하게')이 안겨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에는 명사절('우리가 조용히 책을 읽기')이 안겨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에는 서술절('장미꽃이 특히 아름답다')이 안겨 서술어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에는 관형절('일이 많은')이 안겨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③ ⓑ에는 명사절('주인이 돌아오기')이 안겨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16～19] (기술)

**16.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미지 필터링을 하면 디지털 이미지의 밝기나 색상, 선명도, 질감 등을 변환할 수 있다. 각 화소마다 (빨간색, 녹색, 파란색)의 형태로 색의 밝기 정보가 담기며 이들의 조합으로 화소의 색이 결정되는데, 각 화솟값이 하나라도 필터에 의해 바뀌면 해당 화소의 색이 바뀐다.

**[오답풀이]** ① 화솟값은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가진다. 색의 밝기 정보에서 화솟값 중 하나가 256인 경우는 없다. ③ 화솟값은 0에 가까울수록 어둡다. 각 화솟값이 모두 같은 것이므로 회색인 화소인데, 값이 클수록 더 밝다. ④ 각 화소에 색이 담기며, 이에 관한 색의 밝기 정보가 (빨간색, 녹색, 파란색)인 것이다. 즉 세 개의 화소가 모여서 하나의 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화소마다 세 개의 색의 화솟값으로 색이 결정된다. ⑤ 이미지 필터링은 세 가지 색마다 별도로 진행하여 합하는 과정을 거친다. 합성곱 연산은 하나의 색에 대해 필터를 적용하는 것이다. 각 색이 서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과정인 것은 아니다.

**17.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특정 방법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입력 이미지에 담긴 물건을 출력 이미지에서 돋보이게 하려면 물건 부분에만 이미지를 선명하게 하는 필터를 적용하고, 배경 부분에만 이미지를 흐릿하게 하는 필터를 적용할 수 있다. 즉 정의된 필터를 특정 부분에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답풀이]** ① 이미지 속 대상의 크기나 모양을 변환하는 이미지 필터링도 가능하다. ② 행과 열의 개수가 동일하지 않은 필터는 비정방 행렬 필터이다. 특별한 목적에 따라 그러한 필터가 사용되기도 한다. ④ 합성곱 연산을 적용할 수 없어서 화솟값을 얻지 못하는 부분은 0으로 채우거나 이웃한 화솟값을 복사하여 사용하는 등의 규칙에 따라 처리된다. ⑤ 모든 필터의 값이 필터를 이루는 정방형의 개수만큼 나누는 값으로 이루어진 경우, 즉, 2×2 필터의 값들이 모두 1/4인 경우는 선택 영역에 있는 화솟값들을 평균하는 것과 같다.

**18.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그림>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그림>에서 사용된 2×2 필터에는 1, 2, 3, 4의 값이 배열되어 있다. 즉 분수가 배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합성곱 연산을 통해 얻은 값이 입력 이미지의 선택 영역에 있던 어떠한 화솟값보다도 클 것이다. <그림>에서 사용된 필터는 상대적으로 밝은 화소를 어둡게 하고, 어두운 화소를 밝게 하는 필터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밝게 하는 필터이다.

**[오답풀이]** ① 흑백 이미지는 화소마다 하나의 화솟값만으로 이미지 필터링을 한다. 결국 빨간색, 녹색, 파란색 중 하나에 대해서만 이미지 필터링을 하는 과정과 동일하다. ② 합성곱 연산을 통해 얻은 하나의 값을 출력 이미지에서 하나의 화솟값으로 삼는 방식을 따른다. <그림>에서는 좌측 상단의 화솟값을 결정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③ 2×2 필터와 크기가 같은 선택 영역을 고려하면 선택 영역은 총 네 번 정해지는 상황이다. ④ <그림>의 출력 이미지에서 하단과 우측이 모두 0으로 채워진 상태이므로, 화솟값을 얻지 못하는 화소들을 0으로 채우는 규칙을 따르고 있다.

**19. [출제의도] 지문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5행 5열의 입력 이미지에 두 종류의 3×3 필터를 사용하여 이미지 필터링을 하는 상황이다. 선택 영역에서 정가운데 화솟값을 정하는 것이며, 화솟값을 얻지 못하는 부분은 0으로 채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답풀이]** Q와 R에 대응하는 입력 이미지의 화솟값 간의 차이는 9이다. 출력 이미지에서 Q와 R을 얻기 위한 입력 이미지에서의 선택 영역은 아래와 같다.

Q :

| | | |
|---|---|---|
| 0 | 9 | 18 |
| 9 | 9 | 9 |
| 9 | 18 | 9 |

R :

| | | |
|---|---|---|
| 9 | 9 | 9 |
| 9 | 18 | 9 |
| 0 | 36 | 9 |

이 선택 영역들에 ㉠을 적용하면 Q에 대한 것은 (0×0)+(1×9)+(0×18)+(1×9)+(1/9×9)+(1×9)+(0×9)+(1×18)+(0×9)=46이다. 또한 R에 대한 것은 (0×9)+(1×9)+(0×9)+(1×9)+(1/9×18)+(1×9)+(0×0)+(1×36)+(0×9)=65이다. 두 화솟값이 차이는 19로 이미지 필터링 이전보다 차이가 더 커졌다. 따라서 이 점만을 감안하면 ㉠은 명암 대비를 크게 하는 필터임을 알 수 있다. 이웃 화소들 간의 화솟값 차이가 커지는 필터가 명암 대비를 크게 하는 필터이다.

**[오답풀이]** ① ㉠을 적용하여 얻은 화소 S의 화솟값은 합성곱 연산에 의해 0, 18, 0, 0, 4, 9, 0, 9, 0을 더한 값이다. 즉 40이다. 마찬가지로 ㉡을 적용하면 1, 2, 1, 0, 4, 1, 0, 1, 1을 더한 값이다. 즉 10이 아니라 11이다. ② 합성곱 연산의 결괏값은 선택 영역에 대응하는 부분 중 정가운데 화소에 저장된다. 즉 이미지에서 최외각 화소들의 값은 모두 0으로 채워진다. 화소 P는 원래 0이었고 이미지 필터링 후에도 0이므로 더 밝아지지는 않았다. ③ 입력 이미지에서 4행 2열의 화솟값은 0이다. ㉡을 필터로 사용할 때, 출력 이미지에서 이에 대응하는 화소의 화솟값은 0, 1, 2, 0, 0, 4, 0, 0, 1을 모두 더한 8이다. 즉 0이던 화소 중에 출력 이미지에서 화솟값이 0이 아닌 것도 존재한다. 그 외에 0이던 것들은 최외각 화소들이므로 모두 그대로 0일 것이다. ⑤ ㉡으로 이미지 필터링을 할 때 출력 이미지의 화소 R은 12이고 화소 Q는 10이다. 즉 화소 R에서는 줄어들고 화소 Q에서는 늘어난다. ㉡은 본래 평균값을 구하도록 하는 필터로, 이웃 화소들에 비해 어두운 곳을 밝게, 밝은 곳을 어둡게 만든다. 이는 이미지를 흐릿하게 하는 필터이다.

[20～22] (고전소설) 권필, '주생전'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38쪽)

**20. [출제의도] 인물의 상황과 심리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배도가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는 '맹세의 글'을 써 줄 것을 요구하자 주생은 '푸른 산'과 '푸른 물'이 변하지 않음에 빗대 배도에 대한 자신의 '마음 변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21. [출제의도] 특정 부분의 서술 방식과 그 효과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는, '금빛 병풍과 채색 담요', '백옥 방석' 등의 표현이 보여 주듯,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배경이 되는 방 안 풍경이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주생의 눈에 이 공간이 '황홀'하게 비치고 있다고 서술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색채 이미지를 활용한 것은 공간의 심미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공간의 탈속성을 드러냈다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소녀의 자태를 보고 황홀해진 주생의 내면을 '넋이 구름 밖으로 날아가고 마음이 공중에 뜬 듯'했다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③ 배도를 '갈까마귀나 올빼미', '모래나 자갈'에, 소녀를 '봉황'과 '옥구슬'에 각각 견주어 배도에 비해 소녀의 우월함을 강조하고 있다. ④ 주생이 '숨을 죽이고 엿보았다'고 서술한 다음, 그의 시선에 따라 방 안의 풍경, 부인의 모습, 소녀의 아름다운 자태를 순차적으로 묘사하여 독자에게 마치 실제로 방 안 풍경을 엿보는 듯한 느낌을 강화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⑤ '구름처럼 고운 머릿결에는 푸른빛이 맺혀 있고'와 '아리따운 뺨에는 붉은빛이 어리어 있'다나, '밝은 눈동자로 살짝 흘겨보는 모습은 흐르는 물결에 비친 가을 햇살 같았'다와 '어여쁨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미소는 봄꽃이 새벽이슬을 머금은 듯했다'는, 유사한 성격의 구문을 반복 서술하여 소녀의 외모를 부각하는 대목이다.

**22.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배도가 주생과 인연을 맺게 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눈을 흘겨보는 소녀의 반응을 질투심에서 비롯한 것이라 판단할 수 없다. 빙그레 웃는 모습을 보이며 '좋은 만남을 그르칠 뻔했도다'라고 말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 소녀의 반응은 부인과 자신이 배도의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래 붙잡아 둔 것에 대해 미안해하는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배도의 이야기에 대해 소녀가 보인 반응을 두고 남녀 주인공의 애정 관계가 위기에 처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라는 판단은 성립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② 이익이 기생 곽소옥과 해로할 것을 맹세하고도 그 맹세를 저버렸다는 사연(당나라 소설 「곽소옥전」의 내용)을 환기하면서 배도가 주생에게 '맹세의 글'을 요구한 데에는, 자신에게 사랑을 약속하는 주생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심리가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이미 배도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 주생이 처음 본 소녀에게 반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갈 뻔했다는 것은 배도에게 약속한 사랑이 충동에 의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⑤ 주생은 노 승상 댁의 화려한 방에서 엿본 소녀를 생각하며 '꿈에' '화려한 장막 속에서 선아를 만났'다는 시를 읊는다. 이를 불쾌히 여긴 배도가 '선아'가 누구인지 따져 묻자 주생은 속마음과 달리 '그대가 곧 나의 선아'라고 거짓말을 한다. 주생이 이처럼 거짓말을 한 까닭은 이미 배도와 영원한 사랑을 서약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3～25] (희곡) 채만식, '심 봉사' (작가 연계 : 수능특강 157쪽, 제재 연계 : 수능특강 34쪽)

**23.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에서 심 봉사는 승상 부인이 '아까 그건 거짓말 심청이고 ~ 정말 심청이는 임당수에서 아주 영영 죽었'다고 이야기해 준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 그 전까지는 궁녀 김 씨가 진짜 심청이 아닌지 알지 못했다.

**[오답풀이]** ① 승상 부인은 궁녀 김 씨에게 심청의 대역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심 봉사의 눈을 뜨게 해 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았다. ② 심 봉사는 심청이 살아 있다는 승상 부인의 말을 듣자마자 기뻐서 춤을 춘다. ③ 심 봉사가 눈을 뜨자 승상 부인은 '몽운사 부처님의 영험이' 발현한 것이라고 하며 '다 심청이가 죽은 정성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계획 덕분이라고 내세우지는 않는다.

**24. [출제의도]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희곡의 특성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방백은 관객에게만 들리고 무대 위의 다른 인물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는 대사이다. [B]에 포함되어 있는 승상 부인의 방백은, 심 봉사가 심청이 살아 있다는 말을 들으면 너무 좋아서 충격을 받을 것이니 천천히 말해야겠다는 내용으로, 궁녀 김 씨가 아니라 심 봉사를 배려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오답풀이]** ③ 승상 부인의 계획에 따르자면 [C]에서 궁녀 김 씨는 심청인 척하고 심 봉사에게 달려가 매달려야 한다. 하지만 궁녀 김 씨는 그러지 않고 멈춰 선다. 지문 앞부분에서 심 봉사가 등장할 때도 궁녀 김 씨는 '좋지 아니한 안색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런 행동은 궁녀 김 씨가 자신에게 맡겨진, 심청을 대신하는 역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왕후가 심 봉사에게 바른대로 알려 주라고 한 것은, 심 봉사에게 죄책감을 안겨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건의 진상을 알려 주기 위해서다. 또한 심 봉사가 원전과 달리 도덕적 결함을 지닌 인물인지 아닌지는 지문을 통해 알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원작인 「심청전」에서 심청은 용궁이라는 초월적 세계의 도움으로 살아 돌아온다. 지문에서 승상 부인은 왕후가 해변에서 심청을 구조했다고 설명하도록 한다. 초현실적 세계를 개입시키지 않고 최대한 현실성 있게 심청의 생환을 설명하려는 시도라고 하겠다. ② 심 봉사는 심청이 '출천대효(=하늘이 낸 효자)'이기 때문에 심청이 죽으면 하늘도 무심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에서는, 윤리적 행위는 하늘의 응답을 받는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드러난다. 하지만 지문의 후반부를 보면 심청은 원전과 달리 임당수에서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전통 사회와 달리 '효도는 보상을 받는다'는 것과 같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던 당대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26 ~ 30] (예술) 연계 지문 : 수능특강 88쪽**

**26. [출제의도] 지문에서 다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조선 시대 계회에 고위 관료가 참석했다는 점은 언급되어 있으나 계회의 공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계회는 고위 관료나 사대부들의 사적 모임이다.

**[오답풀이]** ① 기록화에서 많은 정보들을 하나의 화폭에 동시에 담기 위해 여러 높이와 방향의 시선을 병존시키는 산점 투시를 사용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② 계회에 참석했던 인물들은 고위 관료나 사대부임이 언급되어 있다. ③ 부감법은 산악 지형을 터전으로 삼아 온 민족 특유의 시지각 방식이 반영된 것임이 언급되어 있다. ④ 조선 시대에는 문자와 더불어 회화를 공식적인 기록 수단으로 여겼음이 언급되어 있다.

**27.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서양 회화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화가와 분리되어 있는 대상을 그리는 것이다. 소실점은 그 과정에서 사용된다.

**[오답풀이]** ① 조선 시대 부감법의 발달에는 한지를 바닥에 놓고 내려다보며 작화하는 방식이 영향을 미쳤다. ② 소실점은 평행한 두 직선을 멀리 연장했을 때 두 직선이 좁혀지며 지평선에서 만나는 점이다. ④ 대표적인 계회도인 「호조낭관계회도」에서는 고공 경사 부감을 통해 실내에서의 인물 배치를 재구성하여 보여주고 있다. ⑤ 의궤도나 지도 등의 기록화는 그림을 관장하는 관청인 도화원 소속 화원들에 의해 그려졌다.

**28.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특정 기법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부감법은 대상들에 대한 주관적 체험을 재구성하여 화폭에 담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여러 사건들이 하나의 화면에 구성되기도 한다. 이는 화가의 의도적인 구성이 가미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부감법은 묘사하고자 하는 대상을 위에서 내려다본 경험으로 작품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높은 산에서 내려다본 경험 정도는 할 수 있겠으나 실제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을 경험하기 힘들다. 그러한 실제적인 경험으로 작품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부감법은 대상들과 일체되는 체험의 결과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재구성하여 화폭에 담는 기법이다. ② 부감법은 서사적인 내용을 담기에 효율적이어서 조선 시대 기록화에 널리 사용되었다. ④ 부감법 중 고공 부감은 멀리 있는 산을 그리 작지 않게 그려서 산세의 위용이 살아 있도록 그리는 기법이다. ⑤ 부감법은 소실점을 사용하지 않고 공간감을 드러낸다. 특히 고공 부감을 따른 산수화에서는 산들이 켜켜이 겹쳐져 있어 깊이감이 느껴진다.

**29. [출제의도] 지문의 작품과 <보기>의 작품들을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김홍도의 두 작품이 소개되어 있다. 「씨름」은 저공 부감을 사용하여 다양한 인물들의 몸짓과 표정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삼공불환도」는 평행 사선 부감으로 건물과 실내를, 고공 경사 부감으로 주변의 수목과 원경의 산을 묘사하고 있다.

**[정답풀이]** 고공 부감과 고공 경사 부감이 함께 사용된 「호조낭관계회도」와 평행 사선 부감과 고공 경사 부감이 사용된 「삼공불환도」는 모두 여러 방향의 시선을 하나의 화폭에 병존시키는 시도가 반영된 것이다. 즉 산점 투시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는 산수화 등을 선호하는 감상자를 고려한 것이다. 그래서 감상화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오답풀이]** ① 「호조낭관계회도」에서 사선 방향의 시선으로 그려진 건물과 달리 산수는 고공 부감으로 표현되어 있다. 「삼공불환도」에서는 원경의 산이 사선 방향의 시선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맞다. ② 풍속화인 「씨름」에서 화가의 의도적인 구성에 따라 인물들이 배치된 것은 맞다. 다만 이 그림이 기록화의 측면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③ 「호조낭관계회도」와 「씨름」은 모두 많은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담으면서도 현장의 생생함을 전할 수 있는 기법으로 제작된 것이다. ⑤ 「삼공불환도」에 사용된 평행 사선 부감은 저공 경사 부감과 달리 인물의 표정까지 담기는 힘들다. 평행 사선 부감이 건물의 전면과 후면을 같은 폭으로 담는다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다.

**30. [출제의도] 문맥에 따라 적절하게 바꿔 쓰기를 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하늘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은 문맥을 고려할 때 부감법을 사용하여 표현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는 '위에서 밑을 내려다볼 때의 시각상으로' 재구성함을 의미한다.

**[오답풀이]** ① 부감법은 지상에서 체험하여 파악한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이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여 재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② 세밀하고 정확하게 묘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③ 화가의 눈높이에서 보이는 대로 그리는 상황이 아니다. ④ 주관적인 전모를 재구성하는 것이므로 실제적인 전모에 따라 있는 그대로 재구성하는 상황이 아니다.

**[31 ~ 35] (현대시 – 현대소설) 박목월, '대안' / 황인숙,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 윤후명, '원숭이는 없다' (작가 연계 : 수능특강 76쪽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95쪽, 수능특강 187쪽)**

**31.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공통점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는 강 건너편과 화자가 있는 편의 공간 이미지가, (나)에서는 '툇마루'와 '너른 벌판'의 공간 이미지가 대립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두 작품 모두에서 빛과 어둠의 이미지가 대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오답풀이]** ③ (나)에 현재형 진술이 없다. '-리라'는 다짐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⑤ (가)에 유사한 문장 형태의 변주가 나타나지 않았다.

**32.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멀리 어려 오는 불빛'을 '한 오리 응답'으로 여겼다는 것은, 생활에 급급한 삶 속에서도 이상을 향한 추구를 놓지 않았으며, 때로는 삶의 작은 희망들을 (자신의 추구에 대한) 이상적 세계로부터 돌아오는 응답인 양 여기기도 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불빛'을 위안으로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생활에 떠밀려 이상을 저버린 삶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는 간략한 제1연과 제3연을 사이에 두고 제2연을 비교적 길게 배치함으로써, 독자가 시의 형태로부터 강물을 사이에 둔 풍경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 안의 풍경을 시의 구조와 조응시켜 나타낸 것이다. ② '소슬한(=으스스하고 쓸쓸한) 경지'는 외롭고 고독하면서도 높은 느낌을 준다. <보기>와 연관하여 생각해 본다면, 이에 대한 대구를 마련한다는 것은, 시에 오롯이 매진하는 삶을 통해 다다를 수 있는 높은 시적 성취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화자는 그러한 수준의 성취를 이루지 못한 채 중년에 접어든 것에 대해 탄식하고 있는 셈이다. ⑤ 제3연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내리는 비에 '나무'가 젖는 모습으로도, '나무'가 강 건너의 불빛을 받아 빛나는 모습으로도, 혹은 '가을 나무'에 비유된 화자가 비를 맞고 있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강의 이편에 뿌리 내린 채 강의 저편을 바라보는 존재인 '나무'는, 이상을 추구하고자 하나 생활에 매인 존재인 시인과 연관시켜 볼 수 있다. 따라서 '나무'의 모습은 곧 시인의 내면을 투영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33.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그를 안심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짐짓 웃음소리를 곁들였다. 아니, 그만을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나 자신도 안심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나'가 '그'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를 듣고 자신이 원숭이로 변한 것을 알아챈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③ '그'는 '나'의 말을 듣고도, '자기 자신은 아직 원숭이로 변했다고는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④, ⑤ '나'와 '그'는 '어쨌든 함께 그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서, 다급하게 그곳을 벗어나려 하였다.

**34.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을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이윽고 해는 기울어 / 바람은 스산해지겠지. / 들쥐도 참새도 가 버리고 / 어두운 벌판에 홀로 남겠지.'를 보면, ㉡은 상황의 전환을 드러내는 한편 화자가 마주해야 할 현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다)는 어둠(㉢)이 내리는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나'가 겪고 있는, 사람이 원숭이가 되어 버린 사건의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킨다.

**3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에서 '나'가 '사람으로서의 자유'가 사라졌다고 느낀 것은 맞지만, 스스로를 '원숭이'라고 느끼지는 않았다. '사람으로서의 자유'가 사라졌다고 느끼는 것은 '그'가 원숭이로 변한 모습을 본 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기>에 따르면 이는 원숭이로의 변신이 의미하는 일상 밖 세계에 맞닥뜨려, 일상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안정된 삶이 깨어지는 느낌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인용한 대목은 고양이의 활동적인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다. <보기>에 따르면 화자가 이처럼 고양이의 몸동작을 상상한 것에는, 인간의 행동 역량의 회복을 바라는 시인의 지향이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나'가 원숭이를 찾아 헤맨 것은 갑갑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에서였다. 그러나 막상 '나'와 '그'가 원숭이로 변하는 상황이 되자, '나'는 당황하며 이를 '눈들이 어떻게 되'어 서로를 잘못 본 까닭으로 여기려 하거나, 자신이 원숭이로 변한 사실을 믿지 않으려 한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로부터 일상 밖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⑤ (다)의 마지막 문단에서 '나'와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그'는 마치 원숭이를 연상케 하는 자세와 동작을 한 채, 떠나온 '일상을 향'해 '사력을 다해 발걸음을 옮'긴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일상의 질서 밖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현대인의 모습을 동물의 신체적 이질성과 결부하여 나타냄으로써, 현대인이 얼마나 일상의 질서에 구속받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6～41] (인문－과학) 연계 지문 : 수능특강 65쪽**

**36. [출제의도] 지문의 내용 전개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은 제논의 역설에서 가정하는 바와 같은, 무한 개념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무한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 철학적 성취와 수학적 성취를 소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무한 개념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절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 않다. ③ 무한 개념에 대한 역설은 하나만 제시되고 있으며, 역설들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④ 블랙의 이론이 톰슨에 의해 비판되고 있으나, 이를 보완되는 과정으로 볼 수는 없다. ⑤ 무한 개념에 대한 제논의 접근은 철학적 접근이지 수학적 접근이 아니다. 수학적 접근의 한계가 언급된 바도 없으며 철학적 접근의 대안이 여러 개 제시된 바도 없다.

**37.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톰슨은 무한개의 과제들로 이루어진 초과제의 경우에 '모든 과제들의 수행'과 '마지막 과제의 수행'은 실질적으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며, 후자가 아니라 전자가 '과제들의 완수'에 대한 옳은 의미라고 본다.

**[오답풀이]** ① 제논은 '경주장 역설'을 통해 시간에 따른 장소의 변화가 불가능함을 보이고자 하였다. ② 제논은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이 변화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경주장 역설'을 제기했다. ③ 블랙은 모든 과제들의 수행과 마지막 과제의 수행을 구별하지 않았다. 그는 목적지까지 달리는 초과제의 마지막 과제가 없다는 이유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⑤ 톰슨은 블랙이 과제들의 수가 무한한 초과제의 경우에 '과제들의 완수'의 의미로 '마지막 과제의 완수'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본다. 과제들의 개수가 유한한 경우에 오류를 범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다.

**38.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의 진술을 적절하게 완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논은 '경주장 역설'에서 유한한 거리들이나 시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면 그것들의 합은 무한한 거리 또는 무한한 시간이 된다고 가정한다. 이에 대해 코시는 '극한'과 '수렴' 개념을 통해 유한한 값들이 무한히 합해져도 그 총합은 유한한 것일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즉 ㉮는 '유한', ㉯는 '무한', ㉰는 '유한'이다.

**[오답풀이]** ③, ④ '경주장 역설'은 일정한 거리를 계속 더하는 상황이 아니다. 반으로 줄어드는 거리가 계속 더해지는 상황에 관한 것이다. 코시가 증명한 것도 그렇게 합한 거리가 일정한 것이라는 내용은 아니다.

**39. [출제의도] 지문의 특정 개념들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모든 유리수들의 집합'의 원소들은 '모든 양의 정수들의 집합'의 원소들과 일대일 대응을 하므로 그것의 수는 '셀 수 있는 무한'으로 서로 같다.

**[오답풀이]** ① '셀 수 있는 무한'과 '셀 수 없는 무한'은 서로 종류가 다른 수이며, 모두 확정된 수이다. ② '모든 정수들의 집합'의 원소들은 '모든 양의 정수들의 집합'의 원소들과 일대일 대응을 하므로 그것의 수는 '셀 수 있는 무한'이다. ④ '모든 정수들의 집합'의 수는 '모든 양의 정수들의 집합'의 수와 같아 '셀 수 있는 무한'이고, '모든 정수들의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수는 '모든 양의 정수들의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수와 같아서 '셀 수 없는 무한'이다. ⑤ 칸토어는 '모든 양의 정수들의 집합'의 원소들과 일대일 대응을 하는 원소들을 갖는 집합의 수를 '셀 수 있는 무한'이라고 정의하였다.

**40.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특정 논법으로 특정 사례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병'이 실수들을 하나씩 열거함으로써 양의 정수들과 일대일 대응을 시켜 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칸토어의 대각선 논법에 따르면 '병'이 일대일 대응을 완성하면서 실수들을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가 어떠한 방식으로 열거하더라도 그의 열거 속에 포함되지 않는 실수가 있음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답풀이]** 대각선 논법에 따르면 '병'이 열거를 이어 가서 모든 실수들을 열거할 수 없다. 열거된 것들과 숫자가 하나씩 다른 새로운 실수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설사 모든 실수들을 열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든 실수들의 집합'이 '셀 수 있는 무한'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모든 실수들을 열거할 수 없고, 그 점에서 '모든 실수들의 집합'의 수는 '셀 수 없는 무한'인 것이다.

**[오답풀이]** ① '병'은 '모든 실수들의 집합'의 수를 알아보기 위해 열거하고 있다. 즉 집합의 수를 알아보려면 '모든 양의 정수들의 집합'의 원소들과 일대일 대응을 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병'이 실수들을 열거한 것은 일대일 대응을 시켜 보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대각선 논법에 따르면 '병'의 열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모든 실수들의 집합'의 수가 '셀 수 없는 무한'으로, '모든 양의 정수들의 집합'의 수보다 큼을 보여 준다. ④ 열거된 실수들의 맨 위부터 소수점 이하 자리를 하나씩 오른쪽으로 옮겨 가며 숫자 하나씩만을 따와서 만든 '0.317612…'가 '병'의 열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보장이 없다. 이 실수는 지문에서의 칸토어의 대각선 논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출해 낸 수가 아니다. 즉, 이 수가 '병'이 열거하는 어떤 실수와도 적어도 소수점 이하 한 자리에서 다르다고 볼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수는 '병'의 열거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⑤ 열거된 실수들의 맨 위부터 소수점 이하 자리를 하나씩 오른쪽으로 옮겨 가며 숫자 하나씩만을 따온 후 각각 1씩 더해 만든 '0.428723…'은 '병'의 열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실수는 대각선 논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출해 낸 수이다. 이 수는 '병'이 열거하는 어떤 실수와도 적어도 소수점 이하 한 자리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

**41.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상 의미와 가장 비슷하게 쓰인 단어를 찾아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이어지는(이어지다)'은 문맥을 고려할 때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비법이 후세에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졌다.'에서 쓰인 '이어지다'와 의미가 유사하다.

**[42～45] (고전시가) 김상용, '훈계자손가' / 윤선도, '오우가'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89쪽 / 작가 연계 : 수능특강 49쪽)**

**42.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를 적절하게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제8장> 종장은 물음의 방식을 통해, '악명'은 얻고 나면 없앨 방법이 없다는 뜻을 부각하고 있다. (나)의 <제6수> 중장은 물음의 방식으로 '너'(=달)에 비길 만한 것이 없다는 뜻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의 <제1장>은 중장에 대구의 형식이 나타나지만,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것과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상반되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제6장>에서는 '그른 일'을 모르고 하는 것과 알고 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이는 서로 상반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를 대구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② (가)의 <제6장>과 (나)의 <제4수>에는 '－면'이라는 가정 혹은 조건의 연결 어미를 활용한 진술이 나타나 있으며, (가)의 <제6장>의 종장은 이러한 진술을 활용하여 후손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제4수> 초장에서는 이러한 진술이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43. [출제의도] 핵심이 되는 시어를 중심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남이 무어라 하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행하는 데만 마음 쓰겠다는 식의 태도를 담은 사대부의 시가를 흔히 볼 수 있지만, (가)의 화자는 자신의 내면을 어질게 가다듬으면서 타인의 평가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보다 현실적인 삶의 태도를 후손에게 권계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몰라서 한 '그른 일'이나 '허물'이 있어도 뉘우치고 고치면 '어진 사람'이 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제8장>에서는 '몹쓸 일'을 하면 그것을 본 남에 의해 '악명', 즉 나쁜 이름을 얻게 되고, 한번 '악명'을 얻으면 씻을 수 없다고 한다. 여기서 이름이란 타인에 의해 얻게 되는 평판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제1장>의 '어진 이름'을 얻는 것 역시 효제 등을 실천하는 스스로의 끊임없는 노력뿐 아니라 그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있어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제1장>에서 말하는 효도와 어른 공경 등은 모두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한 삶의 태도에 해당한다. ③ '몹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악명'을 얻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고, 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진 이름'을 얻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④ '어진 이름'에 대해서는 틀린 설명이라고 하기 어렵지만, (가)의 화자는 '악명'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고 하지 않았다. ⑤ 반성하여 스스로를 바로잡는 것은 자기 수양에 대해 말한 <제6장>의 주제에 해당한다. 타인의 평가에 대해 말한 <제8장>에서는 '몹쓸 일'을 하면 타인에 의해 '악명'을 얻게 된다고 했을 뿐, 반성하는 태도가 그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다.

**44. [출제의도] 시어의 문맥적 의미와 기능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제4수>에서 화자가 '솔'에 대해 예찬하는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눈서리'에도 변함없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저 깊은 곳에 '뿌리'를 곧게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는 눈에 보이는 모습이고, 후자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화자가 미루어 짐작하며 확신하는 내용이다.

**[오답풀이]** ③ <제4수>에서 화자는 대상의 꿋꿋한 기상을 예찬할 뿐, 연민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제1수>에서 화자는 '달'이 자신의 '벗'이라고 했고, <제6수>의 '높이 떠' 있다는 점은 '광명'과 마찬가지로 화자가 예찬하는 '달'의 속성이다. 화자가 '달'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을 느낀다거나, '높이'가 그러한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제9장>에서 화자는 '부모'를 정성껏 섬기면서 그 일을 행한 '여가에 글 배워 읽'으라고 말한다. '못 미칠 듯 하'라는 말은, 스스로가 마땅한 수준에 못 미칠 것처럼 여기면서, 즉 자만하지 말고 공부하라는 뜻이다. 효에 있어서 가까이서 부모를 섬기는 일보다 입신양명이 최우선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⑤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라는 것은, 대상의 속성을 인간적 덕성과 결부하여 예찬함으로써 작가 자신이 그러한 덕성을 지향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말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